

모두들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고 인사하기보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걱정하며 새해를 맞는다. 문화예술 전공자들 역시 취업합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실 지금껏 이 분야는 겉보기와는 달리 손잡는 소수 사람만이 먹고 살 수 있을 뿐, 빈번한 수입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매년 4년제 대학 문을 나서는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등 순수예술 전공자만 해도 1만3000여 명이나 되고 인근 계열분야까지 포함하면 3만명이 넘는 졸업생이 한 해에 배출된다. 아무리 따져도 문화예술계에 1년에 3만명의 일자리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학들은 제각기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하느라고 신입생을 자꾸만 늘려 간다.



**기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기본’이 있는 나라인가?**

현실은 이런데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예술을 중시하는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된다. 새뮤얼 헌팅턴이란 세계적인 석학의 <문화가 중요하다>란 책에는 “경제와 문화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으므로 나라가 풍요로워지려면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세계 60억 인구에서 선진국을 비롯한 10억명 정도가 잘 사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문화적으로 앞섰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경제와 문화가 밀접시대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점을 들어 취임사에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와 문화예술의 선진화가 함께 가야 경제적 풍요로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문화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문화국

가를 만들어야 하는 절대적인 의지의 표명이기에 우리는 이 말을 굳게 믿고 싶다. 문화예술이 경제발전과 함께 성취된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을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꿈은 우리가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다. 과거 정부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문화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지금껏 원론에 머물고 있음은 무엇 때문일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의 경제 난국에서도 우선순위는 경제다. 맞는 말이다. 잘 살아야 문

화도 발전하며 예술작품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잘사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도 있고, 좋은 집 넉넉한 환경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이 그것으로만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허기져도 정신적으로는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 한편으로 우리가 살던 험준한 시대에 창작된 작품들이 훌륭한 예술품으로 역사에 오래 기억되기도 한다. 잘 살아야 예술을 향수할 수 있고, 못 살면 예술도 즐길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황폐할까. 이치가 이런데도 지금의 정부까지 경제가 잘 풀려야 예술정책도 잘 될 것이란 말을 공공연히 한다.

밥을 굶는 창작예술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아도 누구하나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는 세상. 국회의사당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전기톱으로 잘라내도 벌 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다.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할 것이며, 그런 예산은 펄펄 뛰고 댄스 나라에 살면서 창작예술의 환경을 고쳐달라고 애원해도 누구하나 귀담아 들어주는 이가 없다.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많은 가난한 예술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실타래처럼 엉킨 것이 우리네 삶이라 하지만 모든 질서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민의의 전당은 고깃덩어리를 문 사냥개가 으르렁거리듯이 격한 소동부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웅다웅한다. 이 모든 것이 초발심을 잊어버린, 근본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120만 명이 넘는다는 우리나라의 예술인들은 모두 점잖아서 남부끄러운 일에는 고개를 돌리는지 모르지만 정말 딱한 것은 우리 예술인들이다. 고통스럽고 험난한 길을 가면서도 입을 다무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도 하루빨리 실행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해의 새로운 결심과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하는 때이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의 실천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어두운 그림자처럼 자리 잡고 있는, 바꾸어야 할 마음의 입력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면서 대학생들이 새해에 믿고 실천하려는 마음의 입력 변화들을 소개한다.

**“긍정을 마음에 입력하자”**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98 마음-부처와 중생의 차이**

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보니 이유 없이 공짜로 받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라도 다 갚아야 한다고 했다. 공짜 좋아하던 나보다 그 아주머니가 오히려 그 점에서 철저하신 것이다. 약자라고 생각했던 아주머니에게서 배울 점을 보았다. 이제 누구라도 무시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모두 배울 점이 있는 것이다.

래도 우리 가족만큼 편하지는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가족들의 사랑이 그림고 외로워질 때는, “왜 우리 부모님은 서울에서 살지 못하시냐?”하고 투정 같은 마음이 들곤 했다. 만약 부모님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셨다면, 아니면 형편이 넉넉해 나 혼자 사는 방이라도 있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지내지 않을까 하며 서운한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이제 정신 차리게 됐다. 얼마나 더 힘든 친구들이 많은데, 또 이에 대해조차 다닐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 생각만 했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나에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친척들과 항상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 주시는 종결하는 부모님이 계시다. 무얼 더 바라야 하나. 마음을 바꾸어보니 나

**나는 가진 것이 많고 환경도 좋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강원도 지방에서 살았다. 재수를 하게 되면서 서울의 이모택에서 생활하게 됐다. 대학입학 후 지금까지 5년째 서울에서 살고 있다. 이모택 가족이 잘해 주시지만 아무

는 정말 가진 것이 많고 내 환경도 누구 못지않게 좋다. 이제 이 환경에 정말 감사하게 됐다. 누구도 부럽지 않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것이다**

좋은점 뿐 아니라 단점도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진정한 내 모습이다. 굳이 좋게만 보이려고 불안하게 애를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남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이다. 두려움을 발전의 계기로 바꾸는 것. 소심했던 나에게 정말 혁명이다. 새해엔 나 자신에게 내면의 혁명을 일으키고 싶다.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님이며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부처이고,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다’라는 법어가 있다. 지금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원하는 마음의 입력이 들어있는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가? 수행정진이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할 수 있는 내면의 무한한 힘을 믿고 찾고 실천하는 것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본 란 100회를 함께 회향하시는 소감을 환영합니다. seon@hope.korea.com(황수경), 서울 마포우체국사서함 111호 (우121-041)

**세상 모든 이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

내가 잘난 척을 하고 타인을 무시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솔직히 길거리의 노숙자의 삶을 비웃고, 지하철에서 노상들의 모습을 무시했었다. 그래서 도와주려는 마음을 절대 가지지 못했었다. 그런데 보시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다. 얼마 전 그 날도 학교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 쪽 팔이 없으신 한 중년 아주머니가 껌을 팔고 계셨다.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외면했는데, 웬지 그 날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졌다. 그래서 원 원짜리를 한 장 드리고 껌을 주시기에 받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내 손에 껌을 꼭 얹어주어 주셨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떠나셨다. 순간 나의 어리석은 행동에 너무 부끄러웠고 그 분에게 죄송했다. 그 아주머니가 껌을 안 받으면 좋아하실 것이라고 내 위주로 생각했던 것이다. 평소엔 무엇이든 작은 거라도 공짜로 받기를 좋아하는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 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 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골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걸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편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코에이 크림을

팔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별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편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람에게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오긴하게 쓸 수 있다. 120ml×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강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 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 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 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곽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사용해보는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제 1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모집**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란**  
불교 상례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무서비스를 교육받아 장례 관련 업체, 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상가봉사조직 등 운영 및 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는 전문직종입니다.

1. 교육기간 : 2009년 1월 13일 ~ 7월 11일 (6개월 과정 총 160시간)  
2.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3. 수강인원 : 40명 (등록 선착순으로)  
4. 수 강 료 : 80만원 (교재포함)  
5. 장 소 :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육관 (조계사 옆)  
6. 신청서류 : 수강신청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7. 강 사 진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출신 석·박사

등록후 바로 현재 진행되는 정규반, 통합반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강의를 3번 하므로 편리한 시간에 맞춰 수강하시면 됩니다.

◆ 수료 후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

현재 정규반 : 매주 (화) 오후 7시 ~ 9시 30분, 매월 1, 3주 (토) 오후 4시 ~ 8시  
통합반 : 매월 1, 3주 (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특전 : 1. 2인이상 등록시 각각 10% 할인 2. 상위 5% 이내 성적우수자 취업 보장  
3. 수료 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F.B.A.과정 등록 시 등록금 30% 할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주)불교생활의례문화원 02) 723-0444